

# “드디어 돌아왔다”...2023 영암왕인문화축제 내일 개막

### 벚꽃잎 길거리 메우며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서 “관광객 불편없이 축제 즐기도록 교통편의·환경정비”

벚꽃잎이 길거리를 가득 채우며, 3월 30일 영암군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막을 올린다.

군은 지난 23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3차 향토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추진위원 운영계획 설명과 왕인문화축제 종합계획 등의 최종 점검에 나서며 축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축제의 첫날에는 왕인박사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왕인사당에서 봉행하는 추모 의례인 왕인박사 춘향제를 시작으로, 왕인박사 학술 연구를 통해 축제 비전을 제시하고 축제

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학술강연회가 영월관 2층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일본 간자키시 왕인박사 현장공원에 있는 왕인문을 왕인박사 유적지에 그대로 재현한 왕인문 제막식이 열릴 예정이다.

둘째날인 금요일에는 왕인박사의 위업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 천자문·경전 성독대회와 글짓기, 사생, 서예 등 문예경연 왕인학생예술대회가 열리고, 유적지 내 왕인박사탄생지부터 영월관 광장까지 이어지는 미니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오후 6시부터는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 탐방원 영암 유치 기원 음악회도 이어진다.

토요일에는 氣찬영암 문화인 콘서트에 이어 오후 1시부터 영암의 전통 민속놀이인 도포제 줄다리와 삼호강강술래가 진행되며, 이후 왕인박사의 업을 계승하고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왕인 어린이 독서골든벨과 청소년 K-컬처 콘테스트, 디제이와 함께하는 디제이 파티가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 오전에는 주무대에서 구림마을까지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는 구림마을 벚꽃길 대회와 읍면 놀이경연이 열리며, 오후에는 왕인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인 ‘K-레전드 왕인의 귀환’ 퍼레이드와 영암 성향 예술단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저녁 폐막 행사를 피날레로 축제가 막을 내린다.

군 관계자는 “축제 시작 전부터 벚꽃을 보러 오는 상춘객으로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이 북적이고 있고, 축제 기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영암



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불편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편의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무안군, 청년 소상공인 ‘마켓 올래(來)’ 2만 명 다녀가

무안군은 지난 25일 청년 소상공인마켓 올래(來)에 2만 명의 주민들이 찾아와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많아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켓 올래는 오통신도시 대표공원인 오통공원을 개최장소로 해 지역 먹거리, 음식, 의류, 액세서리, 미용, 생활, 반려동물용품, 공

예, 뜨개용품 등 다양한 분야로 청년 판매자 100여 팀이 참가해서 진행됐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행사도 마련해 비눗방울 쇼, 피에로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과 양파껍질로 염색, 소묘, 해양쓰레기 유리로 만든 공예 등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신안군, 흑산도 철새 먹이 공급사업(조·수수·봄동배추 재배) 효과 특특

예리·심리·사리마을 등

신안군은 흑산면 예리, 심리, 사리마을 등 ‘휴경지를 활용한 철새 먹이 공급사업’이 효과를 특특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대상지 모니터링 결과 이 사업을 시작한 후 예년보다 사업대상지에서 서식하는 철새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먹이 부족으로 철새 관찰이 힘들

었지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취식 활동을 하는 철새가 빈번히 관찰되고 있어 철새의 이동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흑산면 일대에 철새 보전과 주민들과의 상생, 마을 활성화, 소득증대 등을 위한 철새서식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철새의 서식을 지원하는 철새 먹이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의 휴경지에 봄철에는 조·수수를 2017년부터 288농가 25.8ha, 겨울철에는 봄

동배추를 2021년부터 101농가 4.2ha 재배해 철새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철새먹이 공급사업은 철새와 주민에게 서로 상생의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휴경지에 철새 먹이를 재배해 소득증대로 마을에 활기가 띄고, 철새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 영광군,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영광군은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향우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판촉 활동 강화를 통하여 애향심 고취와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

신청서는 농업유통과 또는 각 읍·면사

무소(팩스,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하다. 단 대상자 선정과정 중 읍·면사무소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 열람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자부담 25만원을 낸 후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당해 12월 15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 할 수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 함평군, 2023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함평군은 지난 27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3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침투·도발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경이 협력해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윤영량

군의회위원장, 윤창기 경찰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13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통합방위 추진방향과 비상사태 발령 시 각 기관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목포시,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목포시 용당1지구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약 43억원을 들여 용당1지구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삶터 조성, 공·폐가 철거 등 시민 정주여건 개선, 민관협력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생태계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다시 찾는 희망, 행복마을 용당1지구’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